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진다

온 나라 도처에 일떠서는 《경루동》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대규모 온실농장



뜻깊은 10월 이 나라의 동부지구에 회한한 온실바다, 량포온실농장이 눈부리 아득히 펼쳐져 만사람의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냈다. 280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에 1정보온실, 1 000㎡온실, 500㎡온실들이 850개도 넘게 들어앉아 말그대로 끝간데 없는 온실바다를 펼친 농장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량포온실농장은 앞서 건설된 증평온실농장에 비해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었다. 방대한 면적에 한모양새로 질서있게 앉은 반중용식2중막막수경온실들은 현대적인 수경재배기술을 받아들인 세계적수준의 온실들이다.

온실에서는 오이, 도마도, 고추, 수박, 배추, 진채 등 갖가지 열대남새들과 일년생 등을 심고 자래울수 있으며 그중 모생육보장을 위해 지열난방관을 설치한 수심동의 모온실들에서는 일년내내 남새모를 키울수 있다. 2중막막체계와 보온이불로

보온효과를 높임으로써 무난 방조건에서도 남새생산을 할 수 있으며 온실들에 무도양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량경사면연결식유리도양온실과 10여동의 궁룡연결식막도양온실들도 한계 호동의 부지면적이 1정보에 달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리용률이 높고 토양재배에 적합한 여러가지 남새들을 생산할수 있어 효과적이다. 동채로 화북에 옮겨도 세상에 다시없는 결실이 되고 찬란을 불리일키는 명화가 될 광경은 온실바다에만 있지 않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 세대의 단층, 소층살림집들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를 이룬 량포의 온실농장마을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량포의 전변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본보기, 표준이다.

농기계바다를 펼친 서해국창 황남



이해의 가을철에 서해국창 황해남도에서 대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동음이 황해남도의 드넓은 대지에서 울려진것이다.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포진마다에서 온정어린 농기계들을 가지고 가을걷이와 난알탈기를 하계 된 기쁨이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차 넘치였다. 농물높은 새형의 농기계들을 가지고 황남의 모든 시, 군들에서 지난해에 비해 한 주일이나 기일을 앞당겨 벼가을을 완전히 결속하였으며



난알탈기에서도 1.5배의 실적을 올리며 성과를 이룩해나갔다. 황해남도가 생겨 처음 보이는 기적은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기어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이 땅에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안아온 것이다. 지난 9월 25일 해주시의 광장과 주변도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에 보내주신 5 500대의 새 농기계들이 짝 들어차 장쾌한 광경을 펼치였다. 그것을 보며 황남인민들 누구나 말하였다. 세상에 없는 농기계열병식이라고. 농기계들을 줄지어 세운 부지면적만 하여도 추수경기장 8개의 면적에 달하는 6만여㎡, 한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 화물자동차에 실는다면 3천여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 기계도 쓸어보고 저 기계도 쓸어만지며 수천대의 농기계들이 모두 우리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우리자체의 힘으로 만든 자력자재의 힘이라는 사실을 제논으로 확인하는 황남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은 더없이 컸다. 농기계 한대가 귀한 이때 새 농기계들을 수천대나 보내주시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온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뒤덮고 농민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거대한 전변을 낳는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한 황남의 대경사는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박차를 가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보기로 하여

김화군에 회한한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고 이곳에서 새로운 지방공업혁명의 불화가 타올랐다. 중앙급식료공장 못지 않게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급식료공장의 자동화, 흐름선화된 생산공정에서는 맛좋은 간장, 된장, 기름, 사탕, 과자, 산파실탄물, 빵 등 갖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져나오고 번듯하게 꾸러진 옷공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질 좋은 피

부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환경보호형, 절약형으로 꾸러진 종이공장에서 생산되는 필기종이, 위생종이, 학습장을 비롯한 각종 종이제품들은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으며 비누, 수지그릇류, 목제품, 초물제품 등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장의 제품들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상점마다에 자기 고장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맛좋은 식료품들과 질 좋은 소비품들이 그득히 쌓여있어 주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 자기 군의 상표를 단 상품들을 사가고 다른 고장의 사람들이 저저마다 이 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찾고있는 광경은 볼수록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각지에서는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본받아 자기 지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